

하는지 제자도를 보여주고 있다. 그 제자도의 핵심은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것과 재물의 올바른 사용이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에서는 마지막 때를 생각하지 않고 재물에 대해 옳지 못한 태도를 보인 부자를 반면교사로 내세운다. 부자의 이런 모습은 불신의 열매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많은 부를 가지고 있지만, 내 집 앞의 굶어 죽는 사람을 신경 쓰지 않고 오롯이 자신의 삶을 호화롭게 즐기는데 관심이 있다. 이런 사람은 그가 참 믿음을 갖지 않았다는 것을 방증한다. 그리하여 마지막 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다. 따라서 누가복음 15장의 구원 이야기는 누가복음 16장에서 종말론적 신앙을 통해 재물을 지혜롭게 사용하는 이야기로 열매를 맺는다.

## 좋은 신학 교수는 누구인가?

송영목(고신대학교 신학과)

### I. 들어가면서

포스트-크리스텐덤 사회에서 목회자의 일탈은 반기독교 정서를 가진 사람들이 거의 놓치지 않는 먹잇감과 같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교회 안에 좋은 목사(pastor bonus)의 자질에 관한 연구는 많다. 하지만 좋은 신학 교수가 갖추어야 할 자질에 관한 연구는 드물 뿐만 아니라 다소 생경하기까지 하다. 신학 교수가 목회자의 자격은 물론, 예비 목회자를 목양하기 위하여 그 이상의 면모를 갖추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은 없다(딤후 2:2). 신학 교수가 목회자 후보생을 양육하면서 가르치는 건전한 정통신학은 참 교회의 뼈대처럼 중요하기 때문이다.

고신대학교 신학과 3-4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2023년 6월 8일, 주로 20대로 70명)에서, 신학 교수의 주요 자질은 다음과 같다. (1) 영성과

(담임) 목회 경험과 마인드, (2) 사랑과 겸손같은 성품, (3) 학생과의 소통, (4) 성경으로 시대 흐름을 파악하는 능력 등이었다. 동일한 질문에 고신대 일반대 학원 신학과 석사과정(고신 목사/강도사 5명)의 응답은 (1) 목회 마인드, (2) 학문성 특히 시대에 부합하는 통찰력, (3) 사랑과 겸손을 비롯한 윤리적이고 경건한 본보기가 되는 인품이었다.<sup>1</sup> 같은 질문에 고신대 여자신학원(권사/집사/전도사 17명)의 응답은 (1) 교수로서의 소명을 기도와 성경 묵상과 성령 충만으로 감당함, (2) 가정과 교회에서 신앙과 경건 훈련을 거침, (3) 시대적 통찰력과 학문성, (4) 사랑과 열정과 본보기로써 학생을 멘토링함이었다.<sup>2</sup> 세 그룹의 응답은 우선순위에 있어 차이가 있지만, ‘목회적 역량과 경건, 성경적 통찰과 전공 분야의 학문성, 그리고 사랑을 비롯한 예수님을 닮은 성품’으로 요약되기에 사실상 대동소이하다. 이 조사 결과는 한국에서 존경받는 신학 교수들은 ‘신앙과 비전, 열정, 그리고 교회와 신학생들을 향한 사랑,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태도와 열정, 공부의 깊이는 학생들에게 깊은 영향을 주고도 남았다.’라

1. ChatGPT에 ‘ethics of theological professor’(신학 교수의 윤리)을 검색하면 아래와 같다. 학문적 정직성과 열정, 탐구하는 주제에 대해 선입견을 배제하고 지적 정직성으로 접근함, 학생을 편견 없이 존중하고 열린 토론과 같은 학습 환경을 조성함, 학생의 다양한 배경에 개방적이고 민감성을 유지함, 신앙과 학문성의 균형, 학생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학생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어야 함 등이다(23.6.8. 접속).

2. ChatGPT에 ‘qualifications of theological professor’(신학 교수의 자격)을 검색하면, 아래와 같이 학문적 능력 위주로 설명한다. 교육 기관과 그 기관의 특정 요구 사항에 따라 신학 교수의 자격은 다르다. 하지만 신학 교수는 일반적으로 다음 자격을 갖추도록 기대된다. (1) 박사학위는 특정 신학 분과의 전문가로서 학적 탐구와 교수의 능력을 증명한다. (2) 신학 교수는 신학 개념, 전통, 방법론에 관한 깊은 전문 지식을 갖추어야 하며, 신학 사상과 실천을 형성하는 역사, 철학, 문화적 배경도 이해해야 한다. (3) 학부와 대학원에서의 교수 경험은 물론, 세미나와 워크숍 혹은 신학 연구를 위하여 학생을 멘토링을 해 본 경험이 중요하다. (4) 학문 세계에서 연구와 출판 역량은 정년 교수로 승진하는데 필수 요구 사항이기도 하다. (5) 최신 경향을 염두에 두고 지적 열정을 불태우는 환경을 조성하여 학문적 수월성을 추구해야 한다. (6) 연구팀의 동료와 소통 및 협업함으로써 긍정적인 학문적 환경을 강화해야 한다. (7) 신학 교수는 학생들에게 역할 모델이므로, 헌신하도록 개인의 인격을 연마해야 한다. 또한 자신이 소속한 기관의 사명과 가치를 드높일 수 있어야 한다(23.6.8. 접속).

는 이경직의 설명과 접맥한다.<sup>3</sup> 말씀이 성육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충만하셨으며, 목양의 능력과 사랑과 지혜와 경건과 정의와 권세를 갖추신 랍비이자 선지자이셨으므로, 오늘날 신학 교수의 완벽한 모델이시다.

이 글은 이런 통계를 염두에 둔 채, 신학 교수가 교회의 교사, 교회를 섬기는 복음의 박사, 그리고 세상을 섬기는 공적 사역자로서 어떻게 자신을 준비해야 하는지 연구한다.

## II. ‘교회의 교사’

신약성경에 동사 ‘가르치다’는 97회, 그리고 명사 ‘교사’는 59회 나타난다.<sup>4</sup> 초대교회에 전업 ‘교사’(διδάσκαλος)가 있었는데, 이것은 주로 바울서신에 나타난다(행 13:1; 롬 12:7; 고전 12:28;<sup>5</sup> 갈 6:6; 엡 4:11; 딤후 1:11; 약 3:1; 참고. 딤후 2:7).<sup>6</sup> 아놀드(C. E. Arnold)에 따르면, (디아스포라) 교회의 교사들이 가르칠 때, 세 가지 중요한 자료를 활용했다.<sup>7</sup> (1) 교사는 구약(LXX)을 통해 이스라엘에 관한 이야기와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예수님의 선교와 메시지가 구약에 어떻게 나타났는가를 설명했다. (2) 신약 복음서가 기록되기 이전 시대에 교사는 예수님의 사역과 가르침에 관한 구전을 활용하

3. 이경직, “새로운 시대를 위한 목회 후보생 발굴과 양육: 백석대학교의 사례를 중심으로,” 『성경과 신학』 97 (2021): 102-3.

4. H. Balz & G. Scheider ed., *EDNT* (Grand Rapids: Eerdmans, 1990), 1:317; W. Bauer, *BDAG*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3), 319.

5. 고전 12:28의 ‘선지자’는 교회에서 권면을 말로 가르치기에 뒤따르는 ‘교사’와 어느 정도 중복된다(행 13:1; 15:32). D. E. Garland, *1 Corinthians*, BECNT (Grand Rapids: Baker, 2003), 599.

6. *BDAG*, 241; K. Snodgrass, *Ephesians* (Grand Rapids: Zondervan, 1996), 204.

7. C. E. Arnold, *Ephesians*, ZECNT (Grand Rapids: Zondervan, 2010), 261.

여 가르쳤다. (3) 교사는 특별히 사도를 통하여 초대교회에 알려진 신앙고백과 윤리에 대한 구전을 활용하여 신앙을 전수했다(행 4:42; 골 2:7). 구원계시의 발전을 감안하면, 오늘날 교회의 교사는 구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여 설명해야 하며, 신약성경을 통하여 예수님과 사도의 사역과 교훈을 가르쳐야 한다. 결국 신학 교수가 어떤 세부 전공을 가르치더라도, 성경을 정확히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성경 주해와 성경신학은 기독교 교리와 역사 그리고 선교와 실천신학의 기초이다.

목사는 지역교회의 교사이다. 그런 목사를 양성하는 신학 교수는 ‘교회의 교사’(Doctor Ecclesiae)이다.<sup>8</sup> 개혁교회의 경우, 직분에 목사, 장로, 집사라는 세 직분에다, 이단과 오류(딤후 6:3)에 맞서 성경을 해석하고 건전한 교훈을 가르치고 목회자를 양성하는 교회의 교사가 포함되기도 한다(도르트교회질서 제18조; 베젤총회[1568]; 롬 12:7; 고전 12:28; 참고. 칼빈의 엡 4:11 주석).<sup>9</sup> 교회의 교사 곧 신학 박사(Doctores Theologiae)는 가르치고(legere), 진리를 변호하고 형성하며(disputare), 결정하며(determinare), 설교하고(praedicare), 다스리고 관리해야 했다(regere).<sup>10</sup> 전문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신학 교수는 말씀의 사역자와 다를 바 없다.<sup>11</sup> 그리고 교회는 신학생을 발굴하고 신학생을 후원

하도록 애써야 한다(도르트교회질서 제19조). 신학교육이 교회의 손을 떠나서 정부(교육부)의 관할 아래에 전적으로 놓인다면, 신학 교수를 교회의 직분이라 보기 어렵게 된다. 신학교가 정부의 인정과 승인을 받아 진행되더라도, 교회가 신학 교수를 통해 목회자 후보생을 심사하고 교육을 주관한다.

멀게는 초대교회의 교부(아타나시우스, 암브로스, 어거스틴, 제롬, 크리소스토ム, 대 바실, 나지안주스의 그레고리 등)와 칼빈을 비롯한 종교개혁가들이 교회의 선생으로서 수고와 고난을 감내했다.<sup>12</sup> 그들은 목회 경험적으로 교회를 알았기에, 하나님의 양 떼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며 먹였다. 목사가 ‘영혼의 의사’라면, 신학 교수는 영혼의 의사를 양성하기에 더 탁월한 의사여야 한다. 교회의 교사는 교회의 상태를 성경의 빛으로 정확하게 진단하여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교회의 죄를 비판하여 시정하고, 교회를 위해 실제로 도움이 되는 연구를 수행하며, 교회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교수 사역에 반영해야 한다.

신학 교수가 교회의 교사라면, 신학생은 물론 목회자와 일반 성도도 섬길 수 있어야 한다. 한 예로, 헤르만 리덜보스(1909-2007)는 23세에 신학박사 학위를 취득한 수재였는데, 총 8년의 목회 경험은 주석 작업에 소중한 밑거름이 되었다. 그의 주석은 신학자와 목회자와 신학생은 물론, 성경을 진지하게 탐구하려는 일반 성도를 대상으로 하여 그들의 성경 이해를 도왔다.<sup>13</sup>

8. 참고. B. McGinn, *The Doctors of the Church: 33 Men and Women who shaped Christianity* (New York: Crossroad, 1999).

9. 도르트교회질서를 따르는 미국 기독교개혁교회(CRC)는 네덜란드에서 미국으로 이주한 크리스천이 설립했다(1857). 그 교회의 교회질서 개정판(1914) 제2조에는 신학 교수를 ‘der Doctoren’으로, 1920년 판에서는 ‘Professors of Theology’라고 표기했다. 이것은 엡 4:11의 ‘목사 곧 교사’를 마치 두 직분인 것처럼 오해한 것에서 기인했으며, 신학 교수는 반(semi) 교회 직분으로서 말씀의 봉사자인 목사의 도우미로서 유용하다는 암시는 (CRC 목사였던) I. van Dellen과 (칼빈신학교 실천신학 교수였던) M. Monsma의 *The Church Order Commentary* (Grand Rapids: Zondervan, 1964), 17, 82를 보라.

10. A. L. du Plooy, “Calvin se Vierde Diens, die Doktere-Amp, en Artikel 18 van die Kerkorde van Dordrecht 1618 en 1619: ’N Kritiese Refleksie,” *In die Skriflig* 48/2 (2014): 3.

11. Van Dellen & Monsma, *The Church Order Commentary*, 83.

12. J. T. McNeill, “John Calvin: Doctor Ecclesiae,” in *The Heritage of John Calvin: Heritage Hall Lectures 1960-1970*, ed. J. H. Bratt (Grand Rapids: Eerdmans, 1973), 9-22. 참고로 “신학박사 마르틴 루터는 거룩한 학문에 관심을 가지면서 권력의 정점에 있던 대표자(교황)를 내려 앉히고 그의 가면을 벗겼다. 루터가 교황이 보낸 문서를 1520년에 불태움으로써 중세 교회법도 동일하게 대우했다.” G. H. M. Meyjes, “Het Gezag van de Theologische Doctor in de Kerk der Middeleeuwen: Gratianus, Augustinus Triumphus, Ockham en Gerson,” *Nederlands Archief voor Kerkgeschiedenis* 63/2 (1983), 128.

13. 정훈택, “Herman Nicolaus Ridderbos 박사의 주석에 관하여,” 『교회와 문화』 7 (2001): 31.

### III.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 후보생을 양성하기 위한 ‘복음의 박사’

박사(doctor)는 라틴어 ‘docere’(가르치다)에서 유래했는데, AD 13세기부터 박사학위가 수여되었다.<sup>14</sup> 중세의 위계적 체계에 따르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해하는 최고의 원리이시며, 자연스럽게 신학은 ‘학문의 여왕’이 되었다.<sup>15</sup> 신학박사의 역사는 그 어느 학문보다 장구하다. 1521년 이래 ‘복음의 박사’(Doctor Evangelii)라 불린 마르틴 루터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내는 이 신칭의의 복음은 개인과 모든 영역에 적용되어야 했다. 루터는 경건과 교리를 종합적으로 계속하여 배워간 학생이자 복음의 박사였다. 루터에게 교회의 참된 보화는 영광과 은혜의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이었다(참고. 95개조 반박문 중 제62조). 복음의 박사는 교회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박사이자 복음의 진리를 따라 성도가 실천하도록 안내하는 사역자를 양성한다.<sup>16</sup>

청교도는 신학박사 소지자보다 ‘하나님 말씀의 사역자’(Verbum Dei Minister)를 더 명예로운 호칭으로 여겼다. 루터의 말대로, 말씀의 사역자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신학 서적을 읽는 것을 더 좋아하지 않는다.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서기관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말씀을 연구하고 그다음 준행한 후에 마지막으로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스 7:10; 마 13:51-52). “학생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십시오. 그래서 학생들이 당신의 연구로부터 유익을 얻을 뿐 아니라, 당신 안에서 참 경건의 능력과 실천에 관한 살아 있는 모범을 발견하도록 하십시오.”<sup>17</sup>

14. 윤선자, “한국인 천주교 사제들의 국외박사학위 취득,” 『교회사학』 8 (2011): 219.

15. Du Plooy, “Calvyn se Vierde Diens, die Doktore-Amp, en Artikel 18 van die Kerkorde van Dordrecht 1618 en 1619,” 2.

16. J. Schilling, “Martin Luther: Doctor Evangelii,” *Lutherjahrbuch* 85 (2018): 25, 30-3, 36.

17. 이것은 PRCA의 신학 교수 취임식의 서약문 해설이다. [https://www.prca.org/about/official-](https://www.prca.org/about/official-standards/liturgical-forms/installation-of-professors-of-theology)

신학 교수는 자신이 속한 교회가 수용하는 신앙고백서에 동의해야 한다. 신학 교수진에게 있어 동일한 신앙고백은 출발점이며, 교회를 위한 학문을 하려면 그들에게 그 이상이 요구된다. 예를 들어, 17세기 영국 목회자의 자격은 지적 능력과 성숙한 성품으로 요약된다.<sup>18</sup> 해외 개혁신교회는 신학 교수의 조건으로 대체로 8년 이상의 담임 목회 경험을 요구한다.<sup>19</sup>

목회 경험을 지닌 신학 교수가 강의하는 경우 신학교육의 모든 내용은 목회 현장과 연결되어 이해될 것이다. 또한 신학생들은 신학교육의 목적이 교회에 필요한 목회자로 훈련받는 데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신학 교수는 단순한 학자가 아니라 교회를 섬기는 종이어야 하며, 목회 후보생을 길러내는 훈련소의 교관이나 조교이어야 한다. 신학 교수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사명을 평가받을 때 교회를 섬기는 종으로서 평가받아야 할 것이다.<sup>20</sup>

신학 교수는 목회 경험적으로 교회를 알고 있어야 한다. 그런 경험은 교과서를 통해서 배울 수 없는 내용이 많기에, 신학생을 목양하는 데 꼭 필요하고 유용하다. 개혁신교 신학교의 경우 박사학위가 없어도 신학 교수로 훌륭히 활동하는 경우가 있다.

Van Dellen과 Monsma는 도르트교회질서 제18조 ‘신학 교수의 업무’를 해

standards/liturgical-forms/installation-of-professors-of-theology(2023년 6월 8일 접속).

18. D. Wykes, “The Ministers Calling: The Preparation and Qualification of Candidates for the Presbyterian Ministry in England 1660-89,” *Nederlands Archief voor Kerkgeschiedenis* 83/1 (2003): 279-80.

19. 정훈택, 『헤르만 리델보스』 (서울: 살림, 2003), 49. 참고로 미국 CRC의 교회질서(1930) 제23조는 신학 교수의 자격을 가급적이면 말씀의 사역자로서의 경험을 갖춘 목사여야 한다고 규정했다. Van Dellen & Monsma, *The Church Order Commentary*, 21.

20. 이경직, “새로운 시대를 위한 목회 후보생 발굴과 양육,” 105.

설하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신학 교수는 성경을 히브리어와 그리스어 원문에서 번역하고 주해할 수 있어야 하고, 성경의 역사적 배경과 문학적 특성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하며, 논리적으로 사유할 수 있어야 하고, 성경 전체를 꿰뚫으면서도 거룩한 마음을 품고 있어야 하며, 이단을 물리칠 수 있어야 한다.<sup>21</sup> 요약하면 신학 교수에게 성경 언어, 논리력, 성경의 역사 배경에 관한 지식, 성경 자체에 대한 지식, 경건성, 그리고 이단의 오류를 비판하는 능력을 섭렵해야 한다. 따라서 신학 교수는 성경에 능통해야만 자신의 세부 전공을 제대로 성경적으로 가르칠 수 있다.

신학 교수는 강의실에 들어가기 전에 지혜와 계시와 진리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기도해야 하고, 개혁신학이 자신과 학생들을 실제로 변화시키도록 소망해야 하며, 신학생을 만나 교제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함께 웃고 울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신학 교수의 연구실 문턱을 낮추어야 한다.

신학자와 신학도에게 눈물은 ‘영혼의 보약’과 같다.<sup>22</sup> 사탄은 신학 교수의 메마른 눈에서 나오는 건조한 신학을 반기면서 그와 그의 신학 작업을 엉뚱한 데로 인도한다. 정암 박윤선은 신학 교수가 자기 눈을 쭈셔서라도 억지로 울 것을 권했다고 한다. 생계를 위한 일이 아니라 사랑함으로 신학을 탐구하는 아마추어 신학자가 적지 않다.<sup>23</sup> 하물며 신학 교수는 하나님과 교회와 신학생과 진리의 복음과 사회를 사랑함으로써 신학 탐구에 매진해야 하지 않는가! 기도

와 사랑이 있는 곳에 더 깊은 깨달음과 눈물의 은혜가 있다.

남아공 개혁교회(GKSA) 신학교는 신대원생의 설교학 과목의 실습을 지역 교회의 주일 오후 예배 때 시행한다. 신학 교수 2인은 설교하는 신학생과 함께 지정된 교회에 가서, 장로와 집사의 피드백을 받은 후 평가한다.

#### IV. 세상을 섬기는 목회자 후보를 양성하기 위한 ‘공적 사역자’

공적 사역자(public ministry)인 목사는 교회당 담장 위에 서 있으므로 세상과 교회의 가교와 같다.<sup>24</sup> 신학 교수는 교회와 사회 현장의 목소리와 요구를 정기적으로 살펴야 한다. 공공신학자는 자신이 참여해야 할 광장이 어디인지, 그리고 자신이 표방하는 내용을 어떤 언어로 구사해야 할지 늘 염두에 둔다.<sup>25</sup> 이 두 요소는 모든 신학 교수에게 적용된다. 신학 교수는 매체에 나타난 공적 담론의 이슈와 흐름을 분석하고 자신의 전공 관점에서 신선하고 때로는 예상하지 못한 방향과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sup>26</sup>

한국교회가 풀어야 할 숙제인 교회와 복음의 공공성 회복을 위해 신학 교수는 먼저 자신이 연구한 전공 지식을 실천하여 실천적인 노하우를 쌓아야 한다.<sup>27</sup> 그리고 간학제 및 통섭이 중요한 시대에 신학 교수는 이웃 세부 전공의

21. 1930년경 미국 CRC의 칼빈신학교의 경우, 신학 교수가 부임하면 처음에는 2년만 계약했으며, 그 후 6년을 다시 계약했고, 그 다음 종신 계약이 가능했다. Van Dellen & Monsma, *The Church Order Commentary*, 84-85.

22. J. Dickie, “Practising Healthy Theology in the Local Church: Lamenting with Those in Pain and Restoring Hope,” *STJ* 7/1 (2021): 8.

23. D. T. Williams, “Cartographer of the Divine: C. S. Lewis as Doctor Ecclesiae,” (Paper read at the Ninth Frances White Ewbank Colloquium on C. S. Lewis & Friends, Taylor University, 5-29-2014), 6.

24. 케빈 벤후저, 오언 스트래헌, 『목회자란 무엇인가?』, 박세혁 역 (서울: 포이에마, 2016), 199-204.

25. A. Bradstock, “Doing Theology in a Straitened Public Square,” *IJPT* 9 (2015): 212.

26. Bradstock, “Doing Theology in a Straitened Public Square,” 227.

27. 개인 경건과 목회에 집중된 기존 신학 교과목에 공적신학을 추가하며, 기존 교과목에도 공공신학적 특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안은 이수인, “한국교회의 공공성 회복의 과제와 신학교육을 위한 제언,” 『신학과 실천』 61 (2018): 551-54를 보라.



동료 교수들과 연구를 공유하면서 협업해야 한다.<sup>28</sup> “신학 교수는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 시대의 이슈에 대한 성경적 대안을 신학적으로 내놓을 수 있어야 한다.”(석사과정 학생). 한국 신학계에서 통섭과 융합은 2012년경부터 본격적으로 회자되었는데, 기독교교육학자, 선교학자, 그리고 목회상담학자가 선도하고 있다.<sup>29</sup> 신학 교수 한 사람이 모든 신학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없다.

고신대 신대원의 교육목표 중 “사랑과 공의를 겸비한 섬김의 삶을 교육하고 훈련함으로써 국가와 사회의 변혁과 발전에 기여하며 창조 세계에 대한 책임을 다할 수 있게 한다.”가 있다.<sup>30</sup> 이 교육목표는 기독교 신앙과 신학의 공적 차원을 밝힌다.

## V. 신학 교수를 위한 제언

(1) 고신대 신학생들의 설문조사에서 보듯이, 신학 교수는 개인 경건에 철저해야 한다. “개인 영성이 깊어야 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지 않으면 살아있는 신학을 교수할 수 없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 생활에 깨어 있어야 한다.”(석사과정 학생). 신학 교수가 전리품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

28. 공식적이건 비공식적이건 교수 간의 교제와 협력은 중요하다. 남아공 노쓰-웨스트대학교 신학 교수들은 매일 오전에 차를 나누며 교제에 동참한다. 남편 교수의 생일을 맞이하면 사모가 교수회를 위해 다과를 준비하는데, 이런 친밀한 교제는 신학 교수 간의 갈등을 예방하는 데 일조한다. 또한 전국적 학회로 모임 경우, 신학 성향이 유사한 타 대학의 교수들 간의 교제도 활성화되어 있다.

29. 최초의 기독교 신학교라 할 수 있는 알렉산드리아의 고리문답학교의 커리큘럼에 산술과 기하학, 여러 가지 기초학문과 교양과목이 포함되었다. “비빔밥의 융합모델은 각각의 분과들이 학제간의 융합을 이루는 모델이다. 각 분과의 경계를 허물고 서로 결합과 융합을 이루되, 지향하는 핵심 가치와 목표를 중심으로 결합하는 모형이라 할 수 있다.” 고원석·양정호, “신학함의 융합적 패러다임 모색을 위한 예비적 고찰,” 『신학과 실천』 81 (2022): 11-12, 16, 28.

30. [https://www.kts.ac.kr/home/content/c120406233055\(23.6.8. 접속\)](https://www.kts.ac.kr/home/content/c120406233055(23.6.8. 접속)).

랑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생명력 있는 연구와 교수를 수행할 수 있겠는가!(시 119:162). 교수 자신의 형편과 기도 제목을 학생들과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지역교회 목사가 교인의 기도 지원을 받는다면, 신학 교수는 학생들과 기도로 협력하면 큰 유익이 된다. “신학은 단지 기도로 시작하거나 기도를 동반하는 것이 아니다. 신학의 특유성은 오직 기도의 행위로만 수행될 수 있다는 데 있다”(칼 바르트). “신학자가 되는 것은 이해, 독서, 혹은 사색이 아니라 삶과 죽음과 비판을 받음으로 가능하다”(마틴 루터). 신학 교수의 연구는 자신의 기도예에 정보를 제공하고, 그의 겸손한 기도는 연구에 활력을 준다(시 25:9; 사 66:2; 고전 8:1; 약 4:6). 그리고 신학 교수가 자신의 삶을 신학과 분리하면, 삶과 신학의 아름다움과 신뢰성을 상실하게 된다.<sup>31</sup> 신학 교수의 연구와 삶이 자연스럽고도 탄탄하게 접맥된다면, 그의 신학 교육은 가슴에서 가슴으로 학생에게 전해질 것이다.

(2) 소명과 사명이 흔들리는 마른 뼈와 같은 신학생들을 살려내려는 목표를 세우고 달성하도록 애써야 한다. 이를 위해 신학 교수 자신이 신학교로 파송된 선교사임을 명심해야 한다. 교실 안에서 학업이 부진한 학생을 특별히 돌봐야 한다. “부족한 신학생이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학생 탓을 하지 말고 겸손하게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교수가 된다면 존경받는 교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석사과정 학생).

(3) 자기 전공의 국내외 최신 경향을 섭렵하도록, 신학 안테나를 세워 지속적으로 연구해야 한다. M.Div.보다는 B.A. 과정은 신학 분과의 개론을 다루므로, 연륜과 넓이와 깊이를 갖춘 교수가 담당하는 게 옳다. 교수는 연구물로 말하기에, 소논문은 단행본 출판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급변하는 사회

31. 이 단락은 시카고 소재 무디성경대학 조교수 D. J. Cameron의 설명을 참조했다. [https://www.logos.com/grow/hall-what-makes-a-good-biblical-scholar-or-theologian/\(23.6.10. 접속\)](https://www.logos.com/grow/hall-what-makes-a-good-biblical-scholar-or-theologian/(23.6.10. 접속)).

에 해답을 줄 수 있도록, 성경의 원리를 따라 신학도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그리고 가르침의 은사는 주님의 도움과 성령님의 조명으로 활용해야 한다.<sup>32</sup> 무엇보다 모든 신학 교수는 성경과 개혁주의 신앙고백에 능통해야 한다. 신학 교수의 전문성은 끊임없는 도전에서 나온다. 당연히 자신이 쓰는 것보다 더 많이 읽어야 한다. 양질의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려면 심사에서 종종 탈락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정부(연구재단)로부터 연구프로젝트를 수주하려면, 연구계획서를 다듬으면서 도전해야 한다. 또한 학술대회에서 논문을 발제하려 논평과 질문에 응전해야 한다. 이런 도전을 즐긴다면 학적 우월성과 학문의 즐거움이 보너스로 주어질 것이다. 다른 학자들이 자신보다 더 똑똑함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 현명하다.

(4) 미자립교회 목회자는 물론 다수의 목사보다 많은 수입을 누리면서도 봉사과 나눔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신학 교수는 종교 귀족이 되고 만다는 엄연한 진리를 기억해야 한다. 신학 교수는 교회와 선교 단체 등에 자신의 재능을 기부할 여지가 적지 않다.<sup>33</sup>

(5) 교회 직분자인 신학 교수의 학문성과 경건성을 위해 행정과 제도적 뒷받침이 중요하다. 한 예로, 남아공 개혁교회(GKSA, since 1859)는 노쓰-웨스트대학교라는 기독교종합대학교 안에 학부 과정(Bybelkunde)과 대학원 과정의 신학교(Teologiese Skool, since 1869)를 두고 있다. 이 대학교와 신학교는

1936-1945년에 긴 논의를 거쳐서, 대학교라는 신학의 높은 학문성과 신학교라는 교회를 섬기는 신앙고백적 특성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 이 대목에서 예장 고신교회가 새겨들어야 할 사항이 있다. 그것은 신학과가 없는 기독교종합대학교는 불완전하다는 이런 인식은 고려신학교 설립취지서(1946)에도 나타난다는 점이다.<sup>34</sup> 신학과 학부와 신대원의 연계 및 계단식 교육은 소비자와 사용자와 같은 학생들의 유익을 고려하며 유능한 목사 양성을 위해 필수 사항이다. B.A.와 M.Div. 과정은 신학자를 양성하지 않고 목회자를 양성하는 기초과정임을 기억하면서, 시대의 변화를 반영한 교과과정의 개편을 시행해야 한다.

(6) 고신대 신학생의 설문조사에서 신학 교수의 자질 중 행정력을 언급한 경우는 1-2명에 지나지 않았다. 교회가 신학생 발굴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교수진이 여유롭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신학 교수는 연구와 강의는 기본이며, 지역교회에 소속하여 봉사하며, 신학생 발굴과 대학의 평가보고서 준비, 그리고 행정 업무도 수행할 수밖에 없다.

## VI. 나오면서

개혁신학은 교회를 위할 뿐 아니라, 그 교회가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변혁하도록 돕는다. 교회의 교사이자 복음의 박사이며 공적 사역자인 신학 교수는 교회와 세상을 섬기는 목사 후보생을 양성하는 목회신학자이다. 신학 교수는 지적 유희나 지적 통찰력에 스스로를 매몰하지 않으면서도 학문적 전문성을 끊임없이 계발해야 한다. 그리고 교수로서의 소명 의식을 항시 점검하면서, 하

32. <https://www.prca.org/about/official-standards/liturgical-forms/installation-of-professors-of-theology>(23.6.8. 접속).

33. 개혁주의 신학 교수가 지역교회보다 더 큰 하나님 나라의 화해 원칙을 따르고, 자신이 속한 교회만을 절대화하지 않는 것은 옳지만, 부분별 하게 에큐메니컬 운동에 심취한다면 기독교 혼합주의에 빠지게 되고 만다. 이와 관련된 간접적인 예는 암스테르담 자유대에서 F. W. Grosheide(d. 1972)의 지도로 신약학 박사학위(1936)를 받은 W. J. Snyman(1899-1981)이다. 참고, J. H. van Wyk, "Teologies Nagedink oor W. J. Snyman as Ekumeniese Teoloog," *In die Skriflig* 54/2 (2020): 6-9.

34. 참고, Du Plooy, "Calvyn se Vierde Diens," 6-8.

나님의 사랑과 복음 진리로 불타오르는 마음으로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모범적인 신앙인이어야 한다. 장차 목양하게 될 신학생은 신학 교수의 목양적 자세를 주목하며 롤 모델로 삼아 교훈을 얻을 것이다.

필자의 신학대학원 은사이신 신원하 교수님은 이 글에서 논한 교회의 교사, 복음의 박사, 그리고 공적 사역자로서 귀한 모범을 보이신 분이다. 신교수님은 경건하고 따뜻하지만 올곧은 인품의 소유자이시다. 그리고 개혁주의 기독교윤리 관점에서 현대의 윤리적 이슈들을 탐구하여 현대 사조에 휘둘러서 방향을 잃어버리기 쉬운 현대 교회에게 성경적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와 복음의 공공성을 세상 속에 드러내도록 안내해 오셨다.<sup>35</sup> 필자는 신교수님께서 제공하신 애완동물에 관한 연구물 덕분에, 소위 ‘반려동물’의 구원 문제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고신대 신학과 2023년 신입생들에게 강의한 바 있다. 신교수님은 은퇴를 앞둔 시점까지 연구의 끈을 놓지 않으신다.

또한 신교수님은 미국 유학에서 모든 연구자료들이 한국에 무사히 배송되도록 필자가 1995년에 신대원 1학년이었을 때 신대원 학생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신 바 있다. 이처럼 신학생들과 신학 교수는 학문은 물론, 기도와 신앙의 공동체도 이루어 협력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갖출 수 있다. 신교수님의 가정과 앞으로의 사역에 자비의 주님께서 은혜와 능력을 주시도록 두 손을 모은다.

고신 교회에는 좋은 신학 교수가 있어왔고 지금도 있다. 교회는 이들이 더욱 성령 충만하고, 교회를 사랑하며, 높은 수준의 올곧은 개혁신학이 잘 표출되는 현장을 늘 염두에 두고, 뜨거운 가슴과 사랑으로 신학생들을 목양하도록

돕기를 소망한다.

그런데 고신교회에 교의학이 아니라 교회법을 정통으로 전공한 박사학위 소지자가 없는 현실은 매우 안타깝다. 남아공이나 유럽에서 발전된 교회법(교회정치, 교회질서)을 제대로 연구하려면, 성경, 교의, 신앙고백서, 교리문답서, 교회사, 주요 교단의 헌법서들, 그리고 예전 등을 두루 섭렵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고신 교회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이 분야의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sup>36</sup> 교회법 교수는 자신이 속한 교단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질서와 품위 있게 발전하도록 안내할 책임이 있다.

35. 신교수님은 KCI급 논문에서 한국교회의 위기의 본질과 극복 방안, 목회자의 성격 탈선, 교만, 헛된 영광, 복음주의 진보파와 급진적 좌파의 사회 윤리 비교, 칼빈의 십계명 해석, 신학생 유치 방안, 그리고 자살과 구원을 연구하셨다. <https://www.kci.go.kr/kciportal/po/search/poArtiSearList.kci> (23.7.5. 접속).

36. 한국 천주교 사제들이 유학하여 박사학위를 취득한 경우, 교회법 박사학위가 가장 많고 이어 교의, 성경, 그다음 윤리학 순이다. 윤선자, “한국인 천주교 사제들의 국외박사학위 취득,” 246.